

부산대에서 총장직선제를 지켜내다

- 교육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자.

지난 8월 17일 고(故) 고현철 교수님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해 숨졌다. 많은 학생들과 부산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방학 중임에도 추모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교수님을 잃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다.

지난 몇 년간 고(故) 고현철 교수를 비롯한 부산대 구성원들은 총장직선제 폐지에 맞서 싸워 왔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육부는 "총장직선제를 고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얘기하며 총장직선제를 고수하는 대학의 지원금을 삭감해 왔다. 많은 대학들이 투쟁했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부산대 역시 2012년 총장직선제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배제되고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삭감됐다. 또 정부는 대학특성화사업(CK1)에서도 총장직선제를 지키는 대학들에 대해 사업비를 감액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협박에도 부산대가 국립대 중 유일하게 총장 직선제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3년 동안의 교수님들의 투쟁과 2011년 학생총회와 같은 학생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로 총장직선제를 지켜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총장직선제 폐지 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이미 밝혔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는 벌써 직선제를 유지하면 재정적, 행정적으로 반드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대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 돈은 국립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교육부는 이러저러한 '사업'을 통해 대학을 줄 세우기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의 정신, 즉 국가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국립대에 대한 지원금 삭감은 교수평가제도로 경쟁에 몰린 교수들과 취업·학점 경쟁에 지친 학생들 모두를 압박하는 구실을 한다.

국가가 당연히 국립대에 지원해야 할 지원금을 온전히 부산대 구성원들이 받아야 한다. 따라서 부산대에서 총장직선제를 지켜 낸 교수들과 학생들이 연대해 지원금 삭감을 통한 교육부의 직선제 폐지 협박에 맞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정부가 이토록 총장직선제 폐지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그것이 국공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간선제를 통해 정부 측에 유리한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고, 자신들의 정책을 주입하기 쉽게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을 줄 세우고 영리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힘을 모아 싸워 제동을 걸어야 한다.

9월 18일에 고(故) 고현철 교수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가 있다. 전국의 고(故) 고현철 교수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맞서 부산대 학생들도 함께 싸우자.

민주화의 불꽃 고(故) 고현철 교수 추모 및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대회

- 일시 : 9월 1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문의 연락처 : 010-4181-0050(정외 한태성)
010-4944-7790(심리 박소라)